

전 남

‘녹색산림 버섯학교’ 인기몰이

전국 첫 운영...버섯재배 관심 귀농 희망자 수강 급증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녹색산림 버섯학교’가 귀농 예정자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녹색산림 버섯학교는 버섯재배 무료 초급 교육과정으로 지난 5월 시작해 7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버섯재배법 교육, 버섯균의 생태와 생육원리를 알려주는 실험실습 및 현장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버섯재배가 손쉽게 이해되도록 구성됐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버섯 재배에 관심이 있지만, 재배법 등을 잘 몰라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귀농 예정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버섯학교는 당초 모집 정원이 15명이었으나 수강 희망자가 예상 밖으로 많아 교육인원을 20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귀농 예정자들의 교육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수

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버섯 재배 자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선 소장은 “앞으로도 버섯학교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버섯재배 교육은 물론 도민들의 실험실습장으로 개방, 버섯 재배농가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

■ ‘위기의 농촌경제’ 농지은행으로 넘자

농촌고령화 해소·생산비 절감 ‘일석이조’

1영농 규모화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쌀시장 개방과 2004년 WTO 쌀 제협상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대책 일환으로 영농 규모화와 쌀 전업농 육성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1990년부터 추진해오던 영농규모화 사업에 이어 ▲2005년 농지 임대수탁사업 ▲2006년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2010년 농지매입 비축사업 ▲2011년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차례로 도입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농지은행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성과를 살펴본다.

◇쌀 전업농 7만명 육성 = 영농 규모화 사업은 농지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산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이다.

오는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명을 육성, 쌀 전업농 소득목표를 도시근로자 소득과 동일한 수준인 5300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결과 2011년 현재 쌀 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은 5.4ha로 목표인 6ha의 90%, 호당 평균



영광군 모량면 운당리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모내기예 앞서 논바닥 고르기 작업이 한창이다. 농지은행 사업에 따라 논 경영규모가 클수록 쌀 생산비용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전업농 7만명 육성...농가 소득 향상

농지 장기 임대로 안정적 영농 ‘뒷받침’

농가소득은 4225만원 수준으로 목표인 5300만원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통계청 논 경영규모별 직접 생산비(임대료를 제외한 생산비) 분석결과 논 경영규모 0.5ha미만 소규모 농가의 10a당 직접 생산비는 25만8188원인 반면 10ha이상 농가의 직접 생산비는 42.5%나 절감돼 규모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2011년 현재 총

1206ha를 매입해 전업농 등 1078명에게 총 987ha를 임대(호당 0.9ha)해 600여만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대된 농지는 쌀 이외에 작물(감자·보리·옥수수·콩 등) 재배에 이용돼 쌀수급 조정 정책기여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임대 수탁사업 = 농지은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1만825ha의 농지를 임대 수탁받아 5415명의 쌀 전업농에게 총 5159ha(48%)를 지원해 673만3000원의 소득증대를 올렸다. 또 일반 농업인 1만508명에게 5642ha(52%)를 지원(호당 0.5ha), 337만여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 중 농지매매 사업과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재정 조 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31일 현재까지 농지매매 사업은 상반기 목표의 150%를 달성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장성 편백림 성공사례 배우자

전국 기초단체장 등 400여명 오늘 산림연찬회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12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과 편백 숲에서 전국의 기초단체장 100여명과 이돈구 산림청장 등 산림청 관계자, 학계 인사, 산림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산림복지와 지역개발’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산림복지 정책성과와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가 소개된다.

지역발전 사례로는 김양수 장성군수가 ‘장성 편백림을 연계한 지역발전 사례’를, 김주영 경북 영주시장이 ‘국립 백두대간테라피 단지 조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또 충남대 박범진 교수가 ‘숲 치유와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참석자들은 연찬회에 이어 국내 유일의 편백나무 조립단지인 장성군 축령산의 편백 숲을 찾아 치유의 숲을 체험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 현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열리는 장성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전북도, 전남도 등이 야외 산림홍보부스를 설치해 산림사업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울 영양교사 회장단 초청

완도군 특산물 판매 팸투어

완도군은 최근 서울시 학교영양교사회 회장단(회장 김진숙) 28명을 초청해 완도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99% 이상이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게 됨에 따라 완도수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위한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부취재본부 =정은조기자 ejchung@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회장단은 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 명예면장’에 응모해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완도 특산물 평생고객 및 관측 홍보 도우미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회장단은 노화 전복 체험현장과 견어물 판매업체에서 각각 전복 50kg과 500여만원 어치의 특산물을 구입했다. /서부취재본부 =정은조기자 ejchung@

새끼돼지 폐사 감소

한약재 첨가제 개발

한약재를 이용해 새끼돼지 폐사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연구팀장 김상욱)는 ‘한약재를 이용한 비유(泌乳) - 젖에서 젖이 분비되는 일) 축진용 돼지사료 첨가제’를 개발해 최근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조제한 한약재를 어미돼지에 먹임으로써 유즙 분비를 촉진시켜 새끼돼지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 폐사율을 감소시킨다. 연구진이 통초·목통 등 10여가지 한약재를 조제한 분만일부터 10일째 어미돼지에 급여한 결과 어미 돼지에서 유방염의 발생률이 일반 돼지보다 15.4% 감소하고, 새끼 돼지의 폐사율도 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호 축산연구소장은 “도내 관련업체에 기술 이전에 축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이 도내 가뭄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가뭄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나섰다.

박 사장은 지난 9일 보성군 득량면 덕산저수지(사진)를 찾는데 이어 11일 영광군 백수읍·불갑면 일대 모내기 현장과 불갑 저수지를 찾아 농업용수 확보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내 가뭄극복과 모내기를 위한 영농급수 대책 점검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가뭄 현장 찾아 농민 애로 청취 구슬땀

박재순 사장은 “매년 계속되는 기후 이변과 한미 FTA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농가들을 위하여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농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며 “현장을 통해 들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2012년 가정폭력상담원' (2012 Home Violence Counselor) training course.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duration (July 2nd to 3rd), fees (220,000 KRW), and eligibility criteria. The course is organized by the Korea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Relief Center at Kwangju National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Chilmanpiao Waterproofing (칠만표 방수제). It features the slogan 'SINCE 1988' and '대한민국대표방수제' (Korea's representative waterproofing agent). The ad highlights that the product is recognized by consumers and offers a 100% waterproofing guarantee. It lists various applications like roofs, basements, and parking lot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Chilmanpiao Construction Co., Ltd.